MIRAE ASSET
미래에셋증권

Market Insight
2026.3.30

Mirae Asset Research AI

본 조사분석자료는 인공지능(AI) 기술을 사용하여 생성되었으며, 금융투자분석사의 감수를 받았습니다. 본 자료 마지막에 안내된 중요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감수]
김주연
Jooyoun.kim@miraeasset.com

AI 데일리 글로벌 마켓 브리핑

전쟁 장기화 우려에 미국증시 5주 연속 하락

- 미국 증시 주요 지수 하락..나스닥 이어 다우도 조정구간 진입
- 중동 전쟁 장기화에 유가 급등..미 국채 10년물 금리 4.4%대
- 원화 가치 3월 한 달 3.7% 하락..한국 국채 WGBI 편입·추경 기대

Summary

3월 27일(현지 시각) 미국 증시 주요 지수는 중동 전쟁 장기화에 대한 우려와 이에 따른 국제유가 급등, 그로 인한 인플레 재상승, 이를 반영한 기준금리 인하 기대의 소멸과 국채 금리 상승 등을 부정적으로 반영하며 일제히 하락.

다우존스 산업 평균 지수가 1.73% 하락한 45,166.64에 마감했고 S&P500지수도 1.67% 하락 마감.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2.15% 하락한 20,948.36에 거래를 마쳤으며 중소형주 지수 러셀2000은 1.75% 하락해 2,449.70에 마감함. 전일 나스닥이 고점 대비 10% 이상 하락한 기술적 조정 간에 진입한데 이어 이 날 다우지수 기술적 조정 구간에 진입. S&P500 역시 고점 대비 9% 가량 하락해 기술적 조정 구간 진입을 목전에 두고 있음. 주간으로는 주요 지수 모두 5주 연속 하락세를 지속 중이며 다우지수가 한 주간 0.9%, S&P500 지수가 2.1% 하락. 나스닥은 주간 수익률 -3.23%를 기록해 딥시크 쇼크가 몰아치며 주간 10% 이상 하락했던 지난해 3월 마지막 주 이후 최악의 한 주를 보냄.

시장 심리를 좌우하는 주요 변수는 여전히 중동 전쟁.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 에너지 시설 공격을 유예하고 협상을 시도하고 있다고 밝혔지만 이 날 호르무즈 해협에서 이란과 긴밀한 관계에 있는 중국 선박 2척의 항행이 막혔다는 보도가 나왔고 이스라엘은 이란 제철소 뿐 아니라 핵시설 2곳을 공습하는 등 이란 본토에 대한 공습을 강화함. 미국이 중동에 보병, 기갑부대 등 병력 1만명을 추가로 보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미국의 이란 지상작전에 대한 우려 역시 지속됨. 이란은 미군의 이란 지상 진입이 거대한 화염으로 이어질 것이라 경고. 즉 외교적 해결 노력과 군사적 긴장 고조가 동시에 나타나 사태가 한층 더 복잡해지는 양상. 이런 가운데 주말간 예멘의 친이란 반군 후티는 이스라엘을 향해 탄도미사일과 드론 공격을 감행하며 공식적으로 전쟁에 개입. 전쟁이 다자간 대결로 번지는 양상을 나타내는 가운데 후티 반군의 개입으로 전세계 해상 원유 수송량의 10% 가량이 오가는 홍해까지 막힐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어 이 경우 사우디아라비아 등 다른 걸프 국가들의 전쟁 참여로 전선이 확대될 가능성도 높아지는 상황.

국제유가는 WTI 기준 100달러에 육박해 종가 기준 2022년 7월 이후 최고를 기록했으며 미 국채 10년물 금리는 4.43%까지 상승. 달러인덱스는 다시 100을 상회.

한편 4주째 이어진 전쟁은 급등하는 유가를 매개로 실물 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음이 선행 심리 지표를 통해 확인되고 있음. 이 날 미시간대가 발표한 미국의 3월 소비자 심리 지수는 53.3을 기록해 전달에 비해 3.3포인트 하락, 3개월만에 최저를 기록. 1년

기대 인플레이션은 3.8%로 전달 대비 0.4% 포인트 올라 2025년 4월 이후 최대 상승폭을 기록.

국내 측면에서는 외국인 코스피 순매도가 2월 이후 누적으로 51조원을 넘겨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대를 기록. 달러/원 환율은 1,500원을 돌파해 3월 한 달 원화 가치는 4.72% 급락세를 보임. 이는 주요국 통화 중 가장 부진한 움직임. 다만 4월 1일부터 한국 국채의 FTSE 세계 국채 지수(WGBI) 편입이 예정돼 있어 외국 달러 자금 유입과 그로 인한 환율 안정 효과에 관심. 25조원 안팎의 전쟁 대응 추경 논의도 변동성 완화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

이번주, 월말 월초가 겹쳐 있는 가운데 미국에서는 고용 지표가 대거 공개. ADP 민간 고용, JOLTs, 3월 고용보고서 등이 공개되며 ISM 제조업 PMI도 발표됨.

(다우 -1.73%, 나스닥 -2.15%, S&P500 -1.67%, 러셀2000 -1.75%)

특징종목

업종별로는 임의소비재가 3% 넘게 급락했고 금융과 통신서비스, 기술이 2% 이상 하락. 의료건강과 산업도 1%대 하락세를 나타냄. 다만 에너지가 1.87% 상승했고 필수소비재도 0.78% 상승. 더불어 시가총액 1조 달러 이상의 거대 기술기업은 모두 하락. 최근 아마존 닷컴(-3.95%), 테슬라(-2.76%), 구글 알파벳(-2.49%), 엔비디아(-2.17%) 등 관련주 전반이 대체로 부진하나 특히 마이크로소프트(-2.51%)가 이번 분기 들어 25% 이상 급락, 글로벌 금융위기가 한창이던 2008년 4분기 이후 최악의 분기 수익률을 기록 중.
반면 중동 전쟁으로 국제유가가 연일 급등하자 에너지 기업은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는 강세. 셰브론(+1.62%), 엑슨 모빌(+3.36%), 할리버턴(+4.20%), 옥시덴털 페트롤리엄(+1.49%), 발레로 에너지(+2.49%).
이 날은 에너지 이외에도 필수소비재 업종이 강세. 이날 미시간대가 공개한 3월 소비자 심리 지수가 전쟁 여파로 석달만에 최저를 기록한 가운데 전반적인 소비자 지출이 위축될 경우 소비는 필수 소비재로 보다 집중될 수밖에 없다는 관측에 임의소비재 업종은 크게 하락했지만 필수소비재 업종은 상승한 것으로 풀이. 월마트(+0.58%), 코스트코(+0.43%), 타겟(+2.43%), 코카콜라(+1.37%), 펩시코(+1.47%).
구글의 '터보퀀트' 기술이 새삼 부각되며 최근 메모리 반도체 주가 조정의 빌미로 작용한 가운데 이 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0.50%)와 샌디스크(+2.10%), 웨스턴디지털(+0.73%) 등은 반등. 뱅크오브아메리카(BoA)는 "AI 수요를 가늠하는 궁극적 기준은 효율성 측정치가 아니라 AI 자본 지출"이라며 보수적으로 측정했을 때도 2030년까지 1조 달러를 넘어설 것으로 보이는 AI 관련 지출을 감안할 때 현재 나타나고 있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0.50%)에 대한 매도는 과도한 측면이 있다고 분석. 다만 엔비디아(-2.17%)를 비롯해 브로드컴(-2.82%), AMD(-0.87%), 인텔(-2.20%), 텍사스 인스트루먼트(-1.59%), 램 리서치(-0.10%), 어플라이드 머티어리얼즈(-0.41%) 등은 제한적이나마 하락세를 이었으며 필라델피아 반도체지수는 1.69% 하락함.

앤트로픽이 개발하고 있는 클로드의 신규 모델에서 사이버 보안 성능이 크게 향상된 것으로 알려지자 사이버 보안 관련주가 일제히 약세. 크라우드스트라이크 홀딩수(-5.87%), 팰로 앨토 네트웍스(-5.97%), 지스케일러(-5.89%), 옥타(-7.75%).
개별 종목으로는 아스트라제네카(+2.74%)가 실험 중인 신약이 만성 폐쇄성 폐질환 악화를 의미있게 줄였다는 임상 결과가 나오며 상승했고, 유니티 소프트웨어(+13.54%)는 전일 발표한 전분기 실적과 현재 진행 분기 가이던스가 시장 기대를 웃돈 가운데 뱅크오브아메리카와 모간스탠리 등이 목표주가를 상향 조정하며 상승세를 견인.

채권, 외환 및 상품 동향* 6시 10분, KST 기준

미 국채 금리는 장 중 고점을 찍고 하락하기도 했으나 단기물 금리를 제외하고는 다시금 방향을 틀어 상승 마감. 이 날 미시간대가 발표한 미국의 1년 기대 인플레이션은 3.8%로 예비치 대비 0.4%p 상승했으며 금리 동결, 혹은 인상 가능성에 대한 전망이 더 높아짐. 10년물 금리가 2.4bp 상승한 4.4390%를 기록. 다만 유럽 거래에서 4.0330%까지 올라 일중 고점을 찍은 2년물 금리는 6.60bp 하락해 3.9160%에 마감. 30년물 금리는 4.70bp 상승한 4.9820%로 5%에 보다 가까워져. 2년물 금리 하락과 관련해서는 정오를 앞둔 시각 2년물 국채 선물 쪽에서 대규모 매수 거래(블록딜)가 체결된 것으로 전해짐.

외환시장에서 미국 달러 가치는 4거래일 연속 상승. 이란과 긴밀하게 협력하고 있는 중국 선박마저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지 못했다는 소식에 글로벌 원유 공급 차질 우려가 커졌고 이는 유가와 달러에 강세 압력으로 작용. 주요 6개 통화 대비 달러 가치를 반영하는 달러인덱스(DXY)는 100.117로 전장 대비 0.125% 상승. 전쟁 장기화에 따른 유가와 미국 장기금리 상승을 배경으로 엔화에 대한 매도, 달러화에 대한 매수 움직임이 강화되는 가운데 달러/엔 환율은 160엔대를 돌파. 2024년 7월 이후 1년 8개월만에 160엔대를 돌파. 뉴욕 차액결제선물환(NDF) 시장에서 달러/원 1개월물은 1개월물 스와프포인트를 고려시 전일 서울외환시장 현물환 종가(1,508.90) 대비 50전 하락.

이란 전쟁 관련 엇갈린 신호들이 나오는 가운데 외교적 수사와 달리 실제 전황은 다자화, 격화되는 양상을 띄면서 상품 시장에서 국제유가는 상승. WTI는 5.46% 상승한 배럴당 99.64달러에 마감해 종가 기준 지난 2022년 7월 이후 최고를 기록. 맥쿼리는 이 날 전쟁이 6월 말까지 이어질 경우 유가가 200달러까지 상승할 수 있다고 전망. 금과 은, 구리 등 산업·귀금속 가격은 2% 내외 상승했으며 옥수수와 밀, 대두 등 농산물 가격은 대체로 하락함.

Compliance Notice

- 당사는 본 자료를 제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본 자료는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인공지능(AI) 기술을 사용하여 생성되었으며, 금융투자분석사의 감수를 받았음을 확인합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고객의 투자에 참고가 될 수 있는 각종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인공지능(AI)기술을 사용하여 생성되었습니다. AI가 생성한 본 조사분석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정보 취득의 목적으로만 사용되어야 하며, 신중한 판단과 추가적인 검증을 권장합니다. AI가 생성한 조사분석자료는 자체 검증과정을 거쳤으나,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종목선택이나 투자시기에 대한 최종 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본 조사분석자료는 어떠한 경우에도 고객의 증권투자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 홈페이지 https://securities.miraeasset.com 에서도 이용할 수 있으나 지적재산권은 당사에 있으므로 당사의 허락 없이 무단 복제 및 배포할 수 없습니다.